

보도시점 (전매체) 4. 5.(수) 11:00

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-금융감독원 뜻 모으다

- 전통시장 상인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전통시장과 금융기관 간 결연(장금이 결연)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)는 5일 금융감독원(원장 이복현)과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중소벤처기업부-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3.4.5.(수) 11:00~11:30,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
- (참석자) 중소기업부 장관, 금융감독원장, 우리은행 부행장, 광장시장 상인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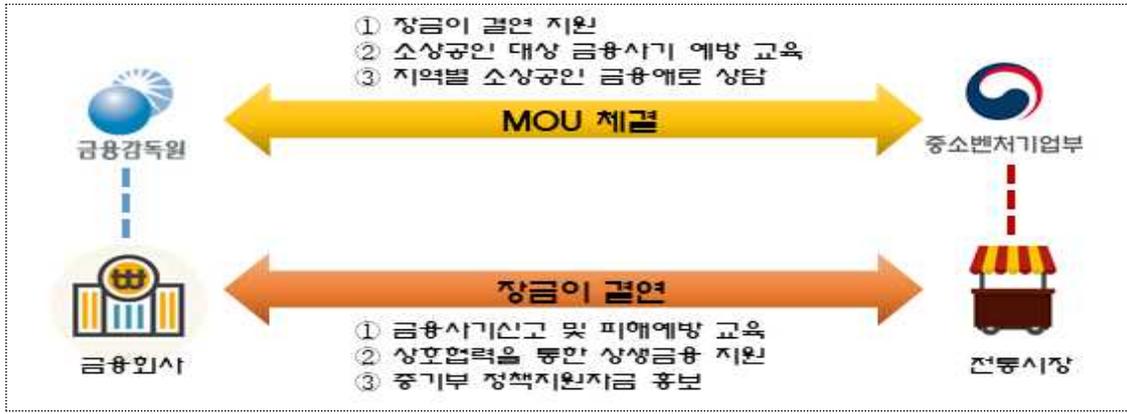
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-금융기관 간 ‘장금(場金)이* 결연’을 지원하고,

- * 시장을 의미하는 ‘장(場)’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‘금(金)’을 합친 말로서,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

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직통 회선(핫라인)을 구축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, 영업점에서 정책자금 대출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또한,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,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*를 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취약 차주 지원 및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.

- * 금감원 및 서민금융기관 전문가가 탑승하여 금융민원상담, 서민금융지원, 금융교육 등 서민금융종합서비스를 일괄(원스톱)로 제공



한편 이날,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.

이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”며,

“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협력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금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“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
“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서로를 복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하였다.

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‘장금이 결연’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기반(인프라)이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	책임자	과 장	안원호 (044-204-7890)
		담당자	사무관	장수환 (044-204-7893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	책임자	부국장	박정은 (02-3145-814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차정은 (02-3145-8137)